

여수엑스포 정책 포럼

“해양강국 발전 ‘국가 전략’ 세워야”

광주일보와 부산일보·MBN·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12 여수세계엑스포 유치 기념 정책 포럼'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행 조건과 전략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해양문화 새롭게 인식할 축제 돼야 KTX 여수연결·개도국 참가 지원 시급

“여수엑스포는 국가적 프로젝트”=토론자로 참석한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 나아가 국민 모두가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해양발전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해 최고의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했다”며 “이는 스페인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공 개최의 선행 조건=이 원장은 ▲여수공항 확장,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KTX 여수 연결, 익산-여수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 조기 건설 ▲콘도·호텔 등 숙박시설 확보와 관광 전문 인력 육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박람회 시설 투자 규모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신속한 예산 집행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개발도상국에 참가 지원 등 마케팅 능력의 강화 ▲여수세계엑스포의 유산이 될 ‘여수프로젝트’의 경우 조 직위와 다른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필요 ▲‘여수선언’은 2~3년 가량 준비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선언으로 발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등을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전략으로 지적했다.

대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엑스포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문상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여수엑스포는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문화가 접목되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여수엑스포가 해양에너지원 확보, 해양환경보전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발전, 자연재해 대비, 해양영토 확장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올림픽을 통해 체육행정은 크게 발전한 게 없고, 대전엑스포를 통해 과학행정도 크게 발전한 게 없다”면서 “여수세계엑스포는 해양행정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와 부산일보·MBN·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12 여수엑스포 유치기념 정책포럼'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매일경제 제공)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전남도의회는 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및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정부의 버스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밝혔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차질=박찬수 의원(대통합민주당·영광2)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최근 F1 특별법 제정 무산과 일부 SPC(특수목적법인)의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별법 무산 서남권 개발 차질 대책 있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공 서둘러야

박 의원은 “F1특별법 제정 무산으로 연말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며 “KAVO 지분구조 개편과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비 우선 투입으로 착공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양승일 의원(민주·비례)은 “J프로젝트나 F1, 서남

권 종합개발계획,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시·도지사가 200만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광주공항 국제선을 잠정 존치기로 합의, 무안국제공항이 무늬만 국제공항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무안고속도로 광주~나주 구간의 조기 완공과 활주로 연장, 급유시설 확충 등을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운영=김창남 의원(대통합민주당·장흥1)은 “80년 5·18 직후 군부 정권의 학살 만행을 무마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된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자체 회관건립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6년여동안 활용치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21세기 문화센터 건립’ 명목으로 15여억 원을 들여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설립 목적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선 D-14 각 후보·캠프 광주·전남 유세전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세몰이에 나선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4일 광주시 구동 광주공원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유세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서 역전 드라마 써 달라”

후보간 합종연횡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의 단일화 제의로 선거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4일 광주·전남에서는 각 당 후보와 의원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중반 표몰이를 계속했다.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나주시 금천면 공동혁신도시 건설현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나가는 대륙철도 개설 공약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정 후보는 이어 광주 농성초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금남로 무등빌딩 앞과 광주공원에서 유세를 벌이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금남로 유세에서 “광주는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오는 19일에도 광주 정신의 부활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광주의 결단’을 당부했다.

정 후보는 광주공원 유세에서는 “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국민장남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민심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정동영을 뽑아 한국 정치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BBK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보의 거짓말 여부로, 국민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BBK, 도곡동 땅, 다스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면 즉각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같은 당 김홍주 장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뒤 장성역 광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당을 각각 ‘부패정당’ ‘무능정당’이라고 비난하며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김덕룡 의원은 전남의 동과 서를 누비는 ‘크로스’ 유세를 펼치며 표심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은 고흥과 보성, 강진, 나주, 함평, 영광에서, 김 의원은 목포와 장흥, 순천, 광양, 여수 등지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

정동영 후보 광주·전남 8대 공약 발표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4일 광주·전남지역 8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책공약 발표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지역 8대 정책 공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조성 ▲첨단산업단지 R&D 특구 지정 및 과거원 학부 신설 ▲첨단노인타운 조성 ▲비엔날레 타운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30% 이상 실시 ▲영산강 뱃길 복원 등

영산강 프로젝트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 유치 등이다.

또 전남지역 8대 공약은 ▲여수박람회 성공적 개최 ▲고흥 항공우주중심단지 특별법 제정 ▲전남지역 삼들을 연계, 개발하는 ‘은하 섬 프로젝트 추진’ 및 APEC 대학원 유치 ▲휴양지구 및 실버산업 육성 ▲친환경 농·수산물 자유무역단지 개발 ▲F1 특별법 조기 제정 및 지원 ▲전남 서남권 경제·자유무역특구 지정 ▲전남 중부권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가자! 제주로 - 한파상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한민국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겨울 한라산 탐방 사은행사 】

UNESC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